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사업 및 마을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구에서 관리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보다 나은 섬 마을의 특성화 사업을 위해 2023년부터 한국섬진흥원이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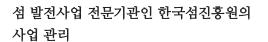


## 낙후된 마을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리적 여건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 '특수 상황지역개발사업' 내역사업 일환으로 시작하여 2011 년부터 2021년까지 섬 지역 60개 마을을 선정·지원했습 니다.



시군구에서 사업을 추진·관리해왔으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한데다 잦은 인력 교체 등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 마을사업에 대한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을계획 수립과정에서 1~2차례 주민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수동적인 절차만 진행될 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주민 역량 강화 및 실행력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도울 총괄관리 조직과 현장 관리자 (PM)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사업추진의 발전적인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2022년부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방식에서 한국섬진흥원에서 총괄 관리(위탁)하도록 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사업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전국





의 지자체 섬 업무 담당 공무원 정책워크숍을 통해 섬 특 성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공감대와 내용을 주고 받 는 귀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 섬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 사업으로 만들어 가다

한국섬진흥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역량을 제고함으로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단(PM)을 운영합니다. 전체 사업은 한국섬진흥원에서 주관하여 PM을 선정·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섬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하며 전문 컨설팅의 역할까지 더합니다.

##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꿈꾸다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소득사업 및 마을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상황지역 내 188개 개발대상 섬으로, 마을 단위로 신청하여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